

보도자료 (2020.11.12)

문의: (주)랩지노믹스 신영준 차장 (031-628-0725)/ thanks@labgenomics.com

배포 직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지노믹스, DTC(소비자 의뢰 직접 유전자검사) 2차 시범사업 기관 선정

분자진단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랩지노믹스(084650, 대표 진승현)가 DTC 2차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DTC(Direct to consumer)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서비스이다.

회사는 지난 해 실시된 1차 시범사업(55종)에 이어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총 70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비타민A, 셀레늄, 루테인 등 각종 영양소를 비롯해 골질량, 복부비만, 운동에 의한 체중감량 효과, 요요가능성 등 그동안 검사가 불가능했던 15종이 추가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DCT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유전체분석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았고, 인력 및 설비 등 운영체계, 검사평가, 소비자보호 부문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수한 평가결과로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도 선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단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

